

【 주간포커스 】

자영업자수의 구조적 감소 추세에 대한 소고

이경아 연구원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경기회복에 따라 전체 취업자수는 2,4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으나 자영업자수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자영업자수 감소는 최근의 경기 움직임과도 역행하고 있어 경기적 요인 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감소 추세의 주요 요인으로서는 자영업의 초과 공급 및 경쟁심화로 인한 자연적 퇴출과 인터넷 확산에 의한 서비스·유통업의 대형화 등을 들 수 있다. 향후에도 자영업자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2010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0년 2/4 분기 취업자수¹⁾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2,417만 명에 달하나 비임금근로자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 호조에 따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제조업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중 보건 및 사회복지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
- 이에 반해 취업자 중 약 30%를 차지하는 비임금근로자가 크게 감소

□ 이처럼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비임금근로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에 대한 우려가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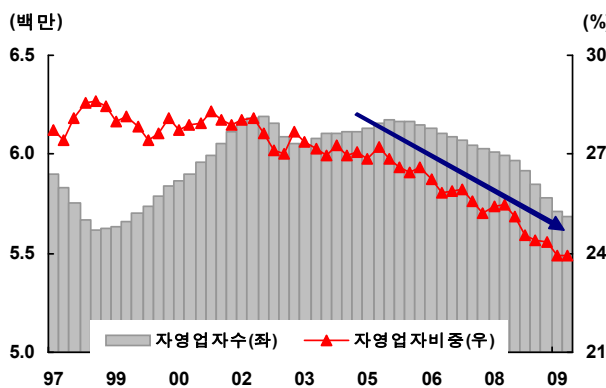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도 사실상 자영업자로 보아도 무방
- 자영업은 서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어 자영업의 위축은 서민경제의 체감경기부진과도 연관

1) 취업자=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그러나 최근의 자영업자수 추이는 외환위기 이후 포화상태에 이르렀던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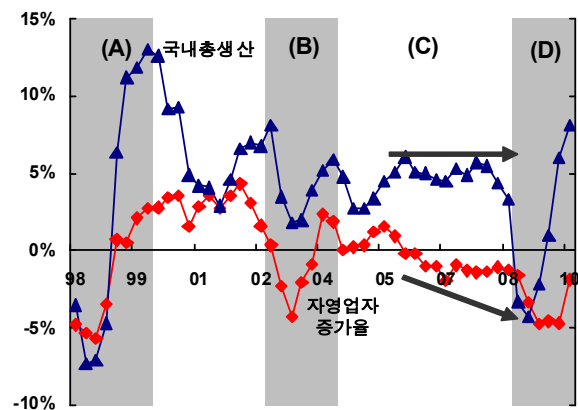
- <그림 1>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전체 자영업자수는 명예퇴직 등 고용구조 불안과 정부의 자영업 창업 지원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의 포화 상태로 구조조정이 시작
- <그림 2>를 보면, 2005년 이전인 (A), (B) 구간에서 자영업자수는 경기변동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거나 2005년 이후인 (C), (D) 구간에서는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그림 1> 자영업자수와 자영업자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국내총생산과 자영업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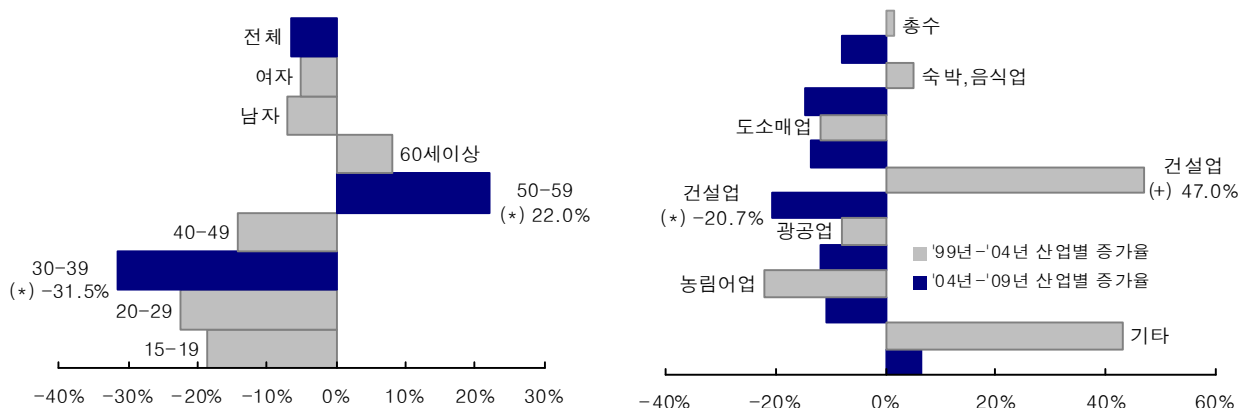
□ 따라서 최근의 자영업자수 감소는 자영업 구조조정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추세적 현상임을 시사

-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소자본창업이 늘면서 음식·숙박업의 초과공급이 야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연적 퇴출이 발생함.
- 인터넷의 확산으로 서비스업의 유통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도·소매업이 대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기와 상관없이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꾸준히 지속

□ 자영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령별로는 30~40대가 감소하고, 50대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산업별로는 건설업 종사자의 감소가 두드러짐.

- <그림 3>을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30~40대 자영업자수가 31.5% 감소한 반면 50~60대 자영업자수는 22% 증가하였음.
 - 이는 구조조정 등으로 50세 이상의 자영업 창업이 증가한 것과 30~40대 건설업 자영업 종사자가 감소한 결과임.
- <그림 4>를 보면, 건설업 경우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자영업자수가 47% 증가하였으나 이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0.7% 감소함.

<그림 3> 성별·연령별 자영업자 증가율('04/'09) <그림 4> 산업별 자영업자 증가율('99/'04/'09)



주: 경제활동인구연보 중 산업별 비임금근로자 자료 사용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주요국에 여전히 크게 높기 때문에 자영업의 구조조정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

<표 1> 주요국의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8
한국 ¹⁾	36.8(27.7)	36.0(27.6)	34.0(26.9)	32.8(26.2)	31.3(25.1)
호주	14.0	13.8	13.1	12.4	11.7
일본	16.6	15.4	14.9	13.8	13.0
미국	7.4	7.2	7.6	7.4	7.0
EU	18.3	17.6	17.5	17.0	16.5
OECD평균	17.6	17.3	17.3	16.4	15.8

주: ()는 자영업자 비중

자료: OECD Labor Market Statistics, 2008

-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에 대한 대책이 단순 창업지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보다는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한편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용이하게 할 필요 KiRi